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제안과 예시 —

박동현*

1. 들어가는 말

『새한글』은 여러 가지 점에서 새로운 번역 성경입니다. 이러한 ‘새로움’을 통해서 다매체 시대의 한국어 사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존 번역본들과 너무 다른 ‘새로움’ 때문에 낯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체적인 보기지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새로워진 까닭을 풀어서 알려 준다면 『새한글』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새로움’이 개인의 경건 생활과 교회의 여러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안내한다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에서는 『새한글』 발간에 즈음하여 ‘번역 해설’을 여러 형식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성서공회 누리집 (<https://bskorea.or.kr/>)의 “새한글 자료실”에 간추린 번역 해설집을 국어와 신약과 구약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올려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원문연구」 제55호 별책으로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라는 공통된 제목 아래 『새한글』 신약의 ‘번역 해설’ 관련 글들을 엮어 발간했습니다. 뒤이어 이제 「성경원문연구」 제56호 별책에서는 『새한글』 구약의 ‘번역 해설’ 관련 글들을 한데 묶어 냅니다.

* Kirchliche Hochschule Berlin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은퇴 교수. dhpark52@gmail.com.

2. 『새한글』 구약 번역 해설 방식

이번 『새한글』 구약 번역 해설 방식을 네 단계로 나누어 제안합니다. 번역 해설의 기본 범위는 절(節)이지만 때로는 한 절의 일부나 여러 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해설할 부분을 맨 먼저 원어 성서 BHS⁵에서 옮겨 적습니다. 책별로 발간 중인 BHQ는 원어 본문이 BHS⁵와 다른 경우만 적습니다. 뒤이어 서로 비교할 한글 번역본 본문을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과 『새한글』에서 옮겨 적습니다. 뒤이어 최신 영어 번역본인 ESV와 NET, 독일어 번역본인 <취리히성서(Zürcher Bibel, 이하 ZB)>, <루터성서(Lutherbibel, 이하 LB)>와 <기초성서(BasisBibel, 이하 BB)> 등에서 옮겨 적기도 합니다.

2.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새한글』이 기존 한글 번역본들과 다른 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최신 외국어 번역본들도 참고합니다. 그리하면서 우선 짧은 문장, 다양한 문체, 달라진 어순, 새로운 어휘들을 찾아내어 소개합니다.

2.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원어 본문에 더욱더 충실하면서도 다매체 시대의 한국어 사용자들과 잘 소통해 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새롭게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어 성경의 긴 문장을 짧은 여러 문장으로 끊어서 번역했거나, 원어 본문의 어순을 최대로 반영하여 번역하는 과정에서 개별 표현이나 문장의 위치를 새로 조정했거나, 여러 가지로 다양한 종결체를 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어 성서에서 반복된 주어를 제대로 반영하려 했거나, 원어 본문의 어색해 보이는 읽기를 되도록 존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휘의 층위에서는 원어의 한 뿌리에서 나온 여러 품사의 낱말들을 함께 써서 아주 인상 깊게 표현하는 수사적인 요소를 최대로 반영했거나, 원어의 어떤 표현이나 낱말이 특정 문맥에서 지니는 독특한 뜻이 제대로 드러나게 했거나, 유사한 어휘가 쓰일 때 각 어휘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하려 했거나, 현대 사회 상황에 비추어 그동안 미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뜻까지 살리려 했거나, 원어 본문의 독특한 표현의 뜻을 제대로 살릴 한글 표현을 새로 찾아 썼거나 심지어는 문맥에 따라 확대 번역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4. 『새한글』의 가르침

『새한글』의 새로운 점들이 개인의 경건 생활과 교회의 설교, 교육, 목회, 선교에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기로 들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아래에서는 『새한글』 창세기와 시편과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와 학개에서 한 군데씩 뽑아서 이런 방식으로 해설해 보기로 합니다. 성서 원어를 모르시는 일반 독자들이 읽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서 원어 바로 그 뒤에 한글 음역을 ()에 넣어 덧붙입니다. 구약 히브리어의 한글 음역은 대체로 출고,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 「성경원문연구」 8 (2001.2.), 106-157을 따르기로 합니다.

3. 창세기 6:6

3.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구역』

『개역개정』

『선한문 구역』

『새번역』

『공동개정』

『새한글』

ESV

NET

ZB

וַיֹּאמֶר יְהוָה כִּי־עֲשָׂתָה אֶת־הָאָדָם בָּאָרֶץ וַיַּעֲצֹב אֶל־לֵבָנָה:

이에 여호와가 땅에서 사람 만드심을 뉘우치사 중심
에 슬퍼 하시고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지(地)에 인(人)을 작(作)하심을 한탄(恨歎)하여 중심
(中心)에 비(悲)하시고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 하셨다.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싫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 만든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
셨다. 무척 마음이 상하셨다.And the Lord regrette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it grieved him to his heart.The Lord regretted that he had made humankind on the earth, and he was highly offended.Da reute es den Herrn, dass er den Menschen gemacht

	hatte auf Erden, und <u>es bekümmerte ihn in seinem Herzen.</u>
LB	da <u>reute es den HERRN</u> , dass er die Menschen <u>gemacht</u>
	hatte auf Erden, und <u>es bekümmerte ihn in seinem Herzen.</u>
BB	Da <u>bereute es der HERR</u> , dass er die Menschen auf der
	Erde <u>gemacht</u> hatte. <u>Er war zutiefst betrübt.</u>

3.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야훼(上帝)의 번역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새한글』에서는 ‘여호와께서는’으로 번역해 넣습니다.

(2) 와인나헴(인간)의 번역

‘한탄하사’(『개역개정』), ‘후회하시며’(『새번역』), ‘왜 …던가 싶으시어’(『공동개정』)와는 달리 『새한글』에서는 ‘유감스럽게 여기셨다’로 번역합니다.

(3) 아사(사람)의 번역

‘지으셨음’(『개역개정』, 『새번역』), ‘만드심’(『구역』), ‘만들었던가’(『공동개정』)와는 달리 『새한글』에서는 ‘만든 것’으로 번역합니다.

(4) 엘립보(와이트앳캡 엘립보)의 번역

‘마음에 근심하시고’(『개역개정』), ‘마음 아파 하셨다’(『새번역』), ‘마음이 아프셨다’(『공동개정』)와는 달리 『새한글』에서는 ‘무척 마음이 상하셨다’로 번역합니다.

3.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야훼(上帝)의 번역

① 이미 5절에서 히브리어 문장의 주어 **야훼**(上帝)를 ‘여호와께서’(『개역』, 『개역개정』), ‘야훼께서는’(『공동개정』), ‘주님께서는’(『새번역』)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원어 성서 6절에 다시 나오는 주어 야훼를 굳이 다시 번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달리 일찍이 『구역』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번역해 두었습니다.

②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려면 번역자가 보기에도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주어라 할지라도 원문이 그렇게 주어를 다시 쓴 까닭이 있을 것이므로 다시 나오는 주어를 번역에서 빼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절에서 사람의 악함을 여호와께서 보신 것이 중요한 만큼, 그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이미 5절에서 제시했던 주어 야훼(야훼)를 6절에서 다시 한 번 쓴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③ 이리하여 『새한글』에서는 『구역』에 이어서 이 주어를 다시 한 번 번역합니다. 그것도 5절에서 그냥 ‘여호와께서’라고 주어를 번역했다면, 이번에는 ‘여호와께서는’이라고 조사에 ‘는’을 덧붙임으로써 글의 흐름을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6절 첫머리의 주어를 쓰지 않을 때는 사람의 죄악과 그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이 그저 하나로 죽 이어지도록 읽게 되어, 5절과 6절이 각각 원인과 결과를 순서대로 알려주는 평범한 복합문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6절 첫머리에 주어를 다시 번역하면서 ‘-는’까지 덧붙이면 사람의 죄악에 대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이 복합문을 읽게 될 것입니다.

(2) 와인나헴의 번역

① 『구역』에 들어 있는 동사 **▣(나함)** 단순재귀형이 『구역』에는 그냥 ‘뉘우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문 구역』에서 ‘한탄하다’로 달라졌고, 이를 『개역』과 『개역개정』에서 넘겨받아 썼습니다. 『새번역』에는 ‘후회(後悔)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한탄하다’는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하다”를 뜻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이 악해졌다 하더라도 원통해 하실 수 있을까요? 더더구나 ‘뉘우치다’는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다”를 뜻하므로, 하나님이 스스로 잘못하신 적이 있어서 뉘우치고 깊이 가책을 느끼신다는 말인가요? 경건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이런 표현을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쓰기 어렵지 않을까요? ‘후회(後悔)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다”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공동개정』에서는 이 동사를 분명히 번역하지 않고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라고 에둘러 그 뜻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② 최신 구약 히브리어 사전(HAL/HALOT)에서는 동사 **▣(나함)** 단순재귀형의 뜻을 ‘후회하다(bereuen/regret), …에게 후회하게 하다, …가 …을 유감으로 생각하다(es reut einem, sich etw. leid sein lassen/to be sorry, come to regret)’, ‘스스로를 위로하다/달래다(sich trösten/to console oneself)’의 세 가지로 나누어 풀이하고는 창세기 6:6의 경우는 두 번째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 이 가운데서는 “…가 …을 유감으로 생각하다”를 활용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감(遺憾)’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이라고 풀이합니다. 이 낱말 또한 창세기 6:6에서 여호와를 주어로 하는 동사 **מְנַחֵּן**(나함) 단순재귀형의 뜻을 제대로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글 표현 가운데서는 가장 나아 보입니다. 다만 ‘유감으로 생각하다’를 ‘유감스럽게 여기다’로 조금 고쳐서 여호와를 주어로 하는 문장에 쓰면 그런대로 괜찮을 것입니다.

④ 이리하여 창세기 6:6 히브리어 본문의 첫 두 낱말 **יְהֹוָה יְמִינָה**(와인나헴 야훼)를 『새한글』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유감스럽게 여기셨다’로 번역해 보기로 합니다.

(3) **הַשְׁעָדָה**(아사)의 번역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동사로는 **אֶרְבָּה**(바라), **הַשְׁעָדָה**(아사), **רָצַח**(야차르), **קָנָה**(카나)가 있습니다. 보통 **אֶרְבָּה**(바라)는 ‘창조하다’로, **רָצַח**(야차르)는 ‘짓다’로, **קָנָה**(카나)는 ‘만들다’나 ‘짓다’로 번역됩니다.

동사 **הַשְׁעָדָה**(아사)가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쓰일 때 창세기 1:7에서는 ‘둥근 지붕(궁창)’을, 31절에서는 ‘모든 것’을 목적어로 하여 쓰입니다. 이 두 곳에서 동사 **הַשְׁעָדָה**(아사)는 보통 ‘만들다’로 번역합니다. 이에 맞추어 창세기 6:6의 동사 **הַשְׁעָדָה**(아사)도 ‘만들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וַיַּחֲטָא בְּלִבְבוֹ**(와이트잇칩 엘립보)의 번역

וַיַּחֲטָא בְּלִבְבוֹ(와이트잇칩)에 들어 있는 동사 **עָצַב**(아참) 강의재귀형에 대해, 최신 구약 히브리어 사전(HAL/HALOT)에서는 ‘깊이 우려하다(tief bekummert sein/to be deeply worried with)’를 뜻하는데 이 동사가 전치사구 **בְּלִבְבוֹ**(엘립보)와 함께 그것도 여호와의 마음과 관련되어 쓰일 때는 ‘마음이 뭉시 상하다(sich gekrankt fuhlen/to feel hurt)’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뜻을 문맥에 맞추어 『새한글』에서는 ‘몹시 마음이 상하셨다’로 번역합니다.

3.4. 『새한글』 창세기 6:6의 가르침

(1) 이 구절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세상의 죄악, 인간의 죄악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반응을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앞서 썼던 주어 ‘여호와’를 다시 한 번 써서 독자들이 몸과 마음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읽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성경의 수많은 문장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주어일 때는 웃깃을 여미고 온 정성을 다해 읽고 그 뜻을 새기는 버릇을 들일 만합니

다.

(2)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죄악을 그저 내려다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님을 이 한 절 말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썩어빠진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노여워하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노여워하시기에 앞서 ‘몹시 마음이 상’하십니다.

4. 시편 84:6상반

4.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⁵	<u>עָבֵרִי בַּעֲמָקֶה הַבָּכָא מְתֻן יִשְׁתַּחַתּוֹ</u>
『개역개정』	그들이 <u>눈물 골짜기</u> ¹⁾ 로 <u>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u> <u>이 있을 것이며</u>
『새번역』	그들이 ‘ <u>눈물 골짜기</u> ²⁾ 를 <u>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u> <u>마실 것입니다.</u>
『공동개정』	<u>페마른 골짜기</u> ³⁾ 를 <u>지나갈 적에 거기에서 샘이 터지고</u>
『새한글』	<u>그들은 바카(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곳을 샘이</u> <u>있는 곳으로 만듭니다.</u>
ESV	<u>As they go through the Valley of Baca they make it a</u> <u>place of springs;</u>
NET	<u>As they pass through the Baca Valley, he provides a</u> <u>spring for them.</u>
ZB	<u>Ziehen sie durch das Bachatal, machen sie es zum</u> <u>Quellgrund,</u> (그들은 <u>바카 골짜기를 거쳐 갑니다, 그것을 샘이 솟</u> <u>는 땅으로 만듭니다)</u>
LB	<u>Wenn sie durchs dürre Tal ziehen, wird es ihnen zum</u> <u>Quellgrund,</u> (그들이 <u>페마른 골짜기를 거쳐 갈 때면 그것이 그들에</u> <u>게는 샘이 솟는 땅이 됩니다)</u>
BB	<u>Müssen sie durch ein dürres Tal, stellen sie sich eine</u>

1) 『개역개정』 난외주 “바카 골짜기로”

2) 『새번역』 난외주 “‘발삼 나무 골짜기’, 또는 ‘바카 지역의 골짜기’”

3) 『공동개정』 난외주 “‘통곡의 골짜기’라고 옮길 수도 있다.”

Quelle vor Augen.

(그들이 메마른 골짜기를 거쳐 가야 하면, 눈앞에 샘을 둡니다)

4.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אַבְקָה עַמּוֹק**(에멕 합바카)의 번역

‘눈물 골짜기’(『개역개정』, 『새번역』), ‘메마른 골짜기’(『공동개정』)와는 달리 『새한글』에서는 ‘바카(눈물) 골짜기’로 번역합니다.

(2) **עֲבָרִי**(오브레)의 번역

‘지나갈 때에’(『개역개정』, 『새번역』), ‘지나갈 적에’(『공동개정』)와는 달리 『새한글』에서는 ‘지나가면서’로 번역합니다.

(3) **מַעַזֵּן יִשְׁתַּחַווּ**(마으얀 여쉬투후)의 번역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개역개정』),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새번역』), ‘거기에서 샘이 터지고’(『공동개정』)와는 달리 『새한글』에서는 ‘그곳을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로 번역합니다.

4.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אַבְקָה עַמּוֹק**(에멕 합바카)에서 **עַמּוֹק**(에멕)은 ‘골짜기’로 번역할 수 있지만 **אַבְקָה**(바카)가 여기서 무엇을 뜻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성서 사전학이나 주석학에서는 **אַבְקָה**(바카)를 고유명사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אַבְקָה**(바카)를 고유명사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אַבְקָה עַמּוֹק**(에멕 합바카, ‘바카 골짜기’)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무엘하 5:23-24; 역대상 14:14-15에서는 **אַבְקָה**(바카)가 나무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전 세계의 성서 번역자들을 위해 2012년에 펴내고 대한성서공회에서 2015년에 번역해 낸 책, 『성서 속의 식물들』, 44-45쪽에서는 이 **אַבְקָה**(바카) 나무가 사시나무 가운데 한 종류일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אַבְקָה**(바카) 나무가 유난히도 많이 있는 곳이어서 그 골짜기를 **אַבְקָה עַמּוֹק**(에멕 합바카, ‘바카 골짜기’)라 불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시편 84:6의 분위기로 봐서는 **אַבְקָה עַמּוֹק**(에멕 합바카, ‘바카 골짜기’)는 물이 귀하여 몹시 메마르고 순례자들이 힘들게 지나가야 하는 곳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84:6의 **אַבְקָה**(바카)를 전통적으로 ‘눈물’로 번역해 온 것은 히브리어 몇몇 다른 사본과 고대 번역본을 따라 현재까지는 표준 히브리어

성서라고 인정받는 마소라 본문과 조금 다르게 이 낱말을 ‘울다’를 뜻하는 동사 **הַכְּבָד**(바카)와 관련시켜 읽은 결과입니다.

이미 『구역』에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시편 84:6의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에서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가슴 뭉클한 가운데 은혜를 받아 온 상황을 생각하여, 『새한글』에서는 일단 고유명사로 보고 ‘바카’로 음역하지만 곧바로 괄호 안에 ‘눈물’을 넣기로 합니다.

(2) **עָבָרִי**(오브레)는 ‘지나가다’를 뜻하는 동사 **עָבֹר**(아바르)의 남성 복수 연계형 분사입니다. 이런 분사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6의 경우에 이 분사가 주동사가 묘사하는 행위의 배경이 되는 시점을 표현한다고 보면 ‘지나갈 때’나 ‘지나갈 적에’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주동사가 묘사하는 행위와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를 표현한다고 보면 ‘지나가면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한글』에서는 후자를 따른 것입니다.

(3) **מַעֲלֵן יִשְׁתַּחַווּ**(마으얀 여쉬투후)에서 **מַעֲלֵן**(마으얀)은, 최신 구약 히브리어 사전(HAL/HALOT)에 따르면 ‘샘이 있는 곳(Quellort/place of origin, source)’, ‘샘(Quell/headwaters)’을 뜻합니다. **יִשְׁתַּחַווּ**(여쉬투후) 자체는 ‘그들이 그것을 …(으)로 만들다’를 뜻합니다. 여기서 ‘그들은’은 ‘바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그것’은 ‘바카 골짜기’를 가리키므로 그런 문맥을 따른다면 ‘그곳’이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עָבָרִי בְּעֶלְמָקְדָּשָׁה מַעֲלֵן יִשְׁתַּחַווּ**(오브레 브에멕 합바카)뿐만 아니라 앞 절인 5절에서 복 있다고 한 사람들 곧 ‘주님을 제 힘으로 삼’고 ‘순례의 길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읽으면, ‘그들은 바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곳을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몹시 메말랐을 것으로 보이는 바카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그 골짜기 이곳저곳에 샘을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먼 길 가기 바쁜 순례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 곳에 샘을 파서 메마른 골짜기를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יִשְׁתַּחַווּ**(여쉬투후)에 들어 있는 3인칭 남성 복수형 주어(그들)를 비인칭주어로 이해하거나 많은 다른 히브리어 사본이나 칠십인역을 근거로 복수형을 단수형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순례자들을 위해 이 골짜기에 많은 샘이 솟아나게 해 주신다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NET와 LB가 그런 보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경건한 감정에 어긋나고 이상하기는 하지만 표준 히브리어 본문에 적힌 그대로 이해하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상하고 어색한 것일수록 원문에 가깝다는 본문비평의 원칙에도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새한글』에서는 ‘그들이 바카(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곳을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로 번역합니다. 이리하여 『개역』에서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지금의 맞춤법으로 고쳐 인용합니다)로 번역하여 어쨌든 ‘되게 한’의 주체는 첫머리에 주어로 나오는 ‘저희’라는 점을 암시한 것을, 『표준』에서 아예 ‘그들은 그 곳을 샘들이 터져 나오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주어를 ‘그들은’으로 명시하는 쪽을 발전한 전통을, 『새한글』에서 이어받는 샘이 됩니다. ESV와 ZB가 이를 지지합니다.

4.4. 『새한글』 시편 84:6상반의 가르침

이렇게 시편 84:6상반을 표준 히브리어 본문에 적힌 대로 번역하는 전통을 살리면, 시편 84편의 주인공인 순례자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순례자들은 그저 순례의 목적지만 바라보고 서둘러 순례하지 않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살기 힘든 지역을 그저 지나가기만 하지 않고 그 지역이 살 만한 곳이 되도록 만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을 통해서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지역 사람들도 당장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새한글』은 순례자들이 수고한 덕택에 샘이 생기게 될 것으로 읽혀서 기존 역본에서보다 좀 더 분명히 더 좋고 다른 느낌으로 시편의 말씀이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고 들을 수 있는, 톨스토이의 글 “두 노인”이 생각납니다. 성지 순례를 떠난 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고대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순례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날의 삶에서 순례의 정신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온 전통도 기억냅니다.

5. 예레미야 3:22상반

5.1. 원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개역개정』

『새번역』

שָׁבֹע בְּנִים שָׁבְבִים אַרְפָּה מִשְׁבְּתִיכְם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 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공동개정』	“ <u>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너희의 마음</u> 을 바로잡아 <u>나를 배반하지 않게</u> 하여주리라.”
『새한글』	(하나님) “ <u>돌아오너라. 뒤돌아 나간 자식들아!</u> <u>돌아서서</u> 나간 너희의 여러 잘못을 내가 고쳐 주겠다.”
ESV	“ <u>Return, O faithless sons;</u> I will heal <u>your faithlessness.</u> ”
NET	<u>Come back</u> to me, <u>you wayward people.</u> I want to cure <u>your waywardness.</u>
ZB	<u>Kehrt</u> zurück, <u>abtrünnige Kinder</u> (<u>배교한 자식들아</u>), ich werde <u>eure Abtrünnigkeiten</u> (<u>너희의 배교행위들을</u>) heilen.
LB	<u>Kehrt</u> zurück, <u>ihr abtrünnigen Kinder</u> (<u>배교한 자식들아</u>), so will ich euch heilen von <u>eurem Ungehorsam</u> (<u>너희의 불순종을</u>).
BB	» <u>Kehrt</u> endlich <u>um, ihr, die ihr auf dem falschen Weg seid</u> (<u>잘못된 길에 있는 자들아</u>)! Ich werde <u>eure Treulosigkeit</u> (<u>너희의 불충을</u>) heilen!«

5.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어순

히브리어 문장의 첫 낱말 **שׁוּבָה**(슈부)의 번역어(돌아오너라)를 맨 처음에 두었습니다.

(2) 번역어

뿌리가 같은 세 낱말 **שׁוּבָה**[슈부], **שׁוּבָבִים**[쇼바빔], **מִשְׁבַּתִּיכֶם**[므슈보테 Kemp])의 상호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번역했습니다.

① **שׁוּבָה**(슈부)의 번역

『개역개정』의 ‘돌아오라’와는 달리 『공동개정』과 『새번역』을 따라 『새한글』에서는 ‘돌아오너라’로 번역합니다.

② **שׁוּבָבִים** (**בָּנִים** 쇼바빔)의 번역

‘배역한 자식들아’(『개역개정』),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새번역』), ‘배반한 자식들아’(『공동개정』)와는 달리 『새한글』에서는 ‘뒤돌아 나간 자식들아’로 번역합니다.

③ **מִשְׁבַּתִּיכֶם** (므슈보테 Kemp)의 번역

‘너희의 배역함을’(『개역개정』),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새번역』), ‘너희의 마음을 (바로잡아) 나를 배반하지 않게’(『공동개정』)와는 달리 『새한글』에서는 ‘돌아서서 나간 너희의 여러 잘못을’로 번역합니다.

5.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어순

한국어 사용 독자들이 히브리어로 적힌 성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의 구조에 맞추어 어순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새한글』에서는 완전히 비문(非文)이 되지 않는 한 원어 성서의 어순에서 드러나는 본문의 중요한 의도와 분위기가 번역에서도 잘 드러나도록 힘씁니다. 원어 성서에서 호격이 명령형 동사보다 앞에 나오는 경우와 뒤에 나오는 경우에는 원어 성서의 어순 그대로 번역합니다.

(2)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여러 품사의 낱말들을 한꺼번에 함께 써서 그 진술 의도를 보다 더 명확하고도 인상 깊게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22상반에서는 ‘돌아오다/돌아가다’를 뜻하는 단순능동어간 동사 **שׁוּב**(습)의 남성 복수 명령형이 동사에서 비롯된 형용사 **שׁוּבָב**(쇼밥)의 남성 복수형, 또 마찬가지로 같은 동사에서 비롯된 여성 명사 **מִשׁוּבָה**(므슈바)의 복수형이 함께 쓰입니다.

① 명령형 동사 **שׁוּב**(습)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בְּנֵיכֶם**(바님,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는 말씀이어서 ‘돌아오너라’로 번역합니다. ‘돌아오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돌아오너라’도 좀 더 다정하게 들립니다.

② **בְּנֵיכֶם**(바님, ‘자식들’)을 꾸미는 말로 쓰인 남성 복수형 형용사 **שׁוּבָבִים**(쇼바빔)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경우에 뿌리가 되는 동사 **שׁוּב**(습)은 ‘하나님한테서 등 돌리고 나간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뒤돌아 나간’으로 번역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 나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심을 표현하는 원문의 분위기와 흐름을 번역문으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③ 이 초대의 말씀에 덧붙여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에서 목적어로 쓰인 여성 명사 **הַמִּשׁוּבָה**(므슈바)의 복수형은 이 경우에 하나님한테서 뒤돌아 나간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저지른 온갖 잘못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한글』에서는 ‘돌아어서 나간 너희의 여러 잘못을’로 풀어서 번역합니다.

5.4. 『새한글』 예레미야 3:22상반의 가르침

이런 새로운 번역을 알맞게 잘 활용하면, 21세기 이후 한국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의 개인 경건 생활이나 교회 공동체의 설교와 교육과 목회와 선교 현장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1) ‘돌아오너라, 내게 등 돌리고 뒤돌아 나가 있는 자식들아, 그렇게 돌아서서 나가서 너희가 저지른 온갖 잘못을 내가 고쳐주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하나님에게서 뒤돌아 나간 사람들,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시다가 무한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교회, 노회, 총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간신과 교회 개혁을 위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2)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늘 새롭게 읽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어서 경건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주는 말씀으로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3)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나 어린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교회 학교에서 교회를 드나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한테서 뒤돌아 나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4) 교역자들의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교역자들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들의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을 살펴보면 숨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돌아가게 하는 말씀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5) 아직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서 까닭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거나 세상을 어둡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권하고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예레미야애가 1:1상반

6.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אֵיכָה יַשְׁבָּה בָּרוֹד תְּעִיר רֶבֶתִי עַמְּ הַיּוֹתָה כְּאַלְמָנָה רֶבֶתִי בְּנוֹיָם

『개역개정』	<u>슬프다</u>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u>과부</u> 같이 되었고
『새번역』	<u>아, 슬프다.</u>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둔비더니, 이제는 <u>이 도성이</u> 어찌 이리 <u>적막한가!</u> 예전에는 뭇나라 가운데 유품이더니 이제는 <u>과부</u> 의 신세가 되고,
『공동개정』	<u>아,</u> 그렇듯 둔비던 <u>도성이</u> 이렇게 <u>쓸쓸해지다니</u> . 예전에는 천하를 시녀처럼 거느리더니, 이제는 <u>과부</u> 신세가 되었구나.
『새한글』	(시인) 어째서 홀로 앉았는가, 사람 많던 도시 예루살렘이! 남편 여윈 여자같이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켰던 도시가!
ESV	<u>How lonely sits the city</u> that was full of people! How like a <u>widow</u> has she become, she who was great among the nations!
NET	<u>Alas!</u> <u>The city</u> once full of people now <u>sits</u> all <u>alone!</u> The prominent lady among the nations has become a <u>widow!</u>
ZB	<u>Ach(으)</u> , wie(어째서) <u>liegt</u> sie <u>einsam(홀로 있는)</u> da, (<u>Alef</u>) <u>die Stadt(도시)</u> , einst reich an Volk, nun einer <u>Witwe(과부)</u> gleich!
LB	<u>Ach(으)</u> , wie(어째서) <u>liegt die Stadt(도시)</u> so <u>verlassen</u> (<u>버림받은</u>), die voll Volks war! Sie ist wie eine <u>Witwe</u> (<u>과부</u>), die Fürstin unter den Völkern,
BB	<u>Ach(으)</u> , wie(어째서) <u>einsam(홀로 있는)</u> ist <u>sie</u> geworden, <u>die Stadt(도시)</u> , die voller Menschen war. Wie eine <u>Witwe(과부)</u> ist sie geworden, die so mächtig unter den Völkern schien.

6.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이 탄식의 시를 쓴 사람이라는 점을 알림으로써 본문 이해를 쉽게 하도록 절 첫머리 괄호 안에 ‘시인’을 적어 둡니다.

(2) 어순

원어 본문에서 ‘어째서’에 뒤이어 묘사하는 고통 상황이 번역에서도 곧바로 전달되도록 원어 본문의 어순대로 서술어(홀로 앉았는가)를 먼저 번역한 다음에 주어(사람 많던 도시 예루살렘)를 둡니다.

(3) 첫 낱말 הכִּי(에카)의 번역

‘슬프다’(『개역개정』), ‘아, 슬프다’(『새번역』), ‘아’(『공동개정』)와는 달리 『새한글』에서는 ‘어째서’로 번역합니다.

(4) 주어 **הִיא**(하이)로의 번역

‘이 성이여’(『개역개정』), ‘이 도성이’(『새번역』), ‘도성이’(『공동개정』)와는 『새한글』에서는 달리 ‘도시 예루살렘’으로 번역합니다.

(5) 동사 **הָבַשׁ**(야취바)의 번역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드러나게 번역하지 않았지만 『새한글』에서는 『개역개정』에서처럼 ‘(그 여자가=도시 예루살렘) 앉다’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6) 부사 **בְּדַבֵּר**(바닷)의 번역

『개역개정』에서는 ‘적막하게’로 번역하고,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이를 정확히 뜻하는 대신에 각각 ‘적막하다’와 ‘쓸쓸해지다’로 서술 동사와 한데 묶어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한글』에서는 ‘홀로’로 번역합니다.

(7) **אֲלֹמֶנְתָּה**(알마나)의 번역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 ‘과부’로 번역한 것과는 달리 『새한글』에서는 ‘남편 여원 여자’로 번역합니다.

새로운 점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이 정도로 줄이기로 합니다.

6.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시편에서처럼 예레미야애가에서도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해당 단락의 첫머리 팔호 안에 그 주체를 적어 독자들의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2) 각 문맥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원어 본문의 어순에 맞추어 도치문으로 번역합니다.

(3) 히브리어 낱말 **אֲכֹרֶת**(에카)의 뜻을 최신 구약 히브리어 사전(HAL/HALOT)에서는 ‘어떻게?(wie?/how?)’, ‘어떤 방식으로?(auf welche Weise?/in what way?)’로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낱말은 원래 의문부사입니다.

그런데 탄식할 때도 그 첫머리에 이 낱말이 쓰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1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 **אֲכֹרֶת**(에카)는 1:1뿐만 아니라 2:1; 3:1; 4:1 첫머리에도 쓰이고, 이 책 전체의 제목으로도 쓰입니다. 이처럼 탄식의 문맥에서 쓰일 때 **אֲכֹרֶת**(에카)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 엄청나게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며 한탄할 때 앞세우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אָכְבָה**(에카)를 ‘어떤 방식으로?’라는 뜻에서 ‘어떻게?’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애가의 문맥에서 볼 때 이 ‘어떻게’는 ‘왜?!’, ‘어째서?!’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큰 비극의 원인을 곱씹으면서 안타까워하며 내뱉는 외마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의 기본꼴인 ‘어찌하다’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찌하여’ 꽂로 쓰여) 어떠한 것이 이유나 원인이 되다.”와 “(…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다.”의 두 가지로 풀이하는 것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4) **הַעֲלִיר**(하이르) 곧 ‘그 도시’가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도시 예루살렘”으로 확대 번역도 합니다.

(5), (6) **בְּדַרְבֵּי יִשְׁבָּה**(야쉬바 바닷) 자체는 한 여자가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보게 합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내 버려진 상황을, 자신을 지켜 줄 사람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아 외로이 앉아 울부짖는 여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בְּדַרְבֵּי**(바닷)의 본뜻대로 ‘홀로’로 번역합니다.

(7) ‘과부’란 말이 차별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 여원 여자’로 바꿉니다.

6.4. 『새한글』 예레미야애가 1:1상반의 가르침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 주시리라고 굳게 믿었던 유다 사람들로서는 자신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이 거룩한 도성이 이방인들에게 점령되고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온 백성이 절단하는 비극이 벌어졌을 때 이 현실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말의 첫마디가 “어째서?!”입니다.

그런데 구약성서의 탄식 전통에서는 이처럼 쓰라린 탄식이 그냥 절망과 끝없는 탄식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닥친 재난 가운데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으로 엄청난 재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어째서?!”라고 울부짖으며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7. 학개 2:11하반

7.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⁵	אַתְּ הַכֹּנִים תֹּרֶה לֵאמֹר
『개역개정』	너는 제사장에게 <u>율법</u> 에 대하여 <u>물어</u> 이르기를
『새번역』	너는 제사장들에게 <u>율법의 가르침</u> 이 어떠한지 <u>물어보아라.</u>
『공동개정』	너는 사제들에게 <u>법을 물어보아라.</u>
『새한글』	‘너는 제사장들에게 <u>가르침을 요청해 보아라.</u>
ESV, NET	<u>Ask the priests about the law.</u>
ZB	<u>Frage doch</u> die Priester nach <u>Weisung</u> :
LB	<u>Frage</u> die Priester nach <u>dem Gesetz</u> und sprich:
BB	<u>Frag</u> die Priester nach <u>einer Weisung</u> :

7.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תֹּרֶה**(토라)의 번역

‘율법’(『개역개정』), ‘율법의 가르침’(『새번역』), ‘법’(『공동개정』)과는 달리 『새한글』에서는 ‘가르침’(『새한글』)으로 번역합니다.

(2) **אָנוּ־לְאָשָׁה**(쉬알나)의 번역

‘물어’(『개역개정』), ‘물어 보아라’(『새번역』), ‘물어보아라’(『공동개정』)와는 달리 『새한글』에서는 ‘요청해 보아라’(『새한글』)로 번역합니다.

7.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תֹּרֶה**(토라)의 번역

여기에 쓰인 명사 **תֹּרֶה**(토라)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에 적혀 있는 ‘율법’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평민이 살아가다가 부딪치는 종교의식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을 때 제사장이 답해 주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학개 2:11-12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학개에게 ‘거룩’의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이스라엘에게 전해 내려온 여러 가지 율법에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제사장들에게 물어보고 가르침을 요청해 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한테서 유권 해석을 받습니

다. 13절에는 하나님이 학개에게 명령하셨다는 내용은 없지만 이번에는 ‘깨끗함’의 문제와 관련하여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묻고 제사장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언자조차도 거룩함이나 깨끗함을 두고서 아직까지 율법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가르침을 제사장들에게 요청하고 제사장들의 답변을 따릅니다. 그 때 제사장들한테서 받는 답변도 **תּוֹרָה**(토라)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תּוֹרָה**(토라)를 가리켜 “제사장의 **תּוֹרָה**(토라)”라고 이름 붙여 이미 모세에게로까지 소급되어 이미 확정되어 있는 **תּוֹרָה**(토라)하고는 구별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이런 경우의 **תּוֹרָה**(토라)는 ‘가르침’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낱말 **תּוֹרָה**(토라)는 ‘율법’을 뜻하기에 앞서 ‘길을 가리켜 줌(Wegweisung/direction)’, 거기서 ‘가르침(Weisung/instruction)’을 뜻한다는 점을 최신 구약 히브리어 사전(HAL/HALOT)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학개 2:11의 **תּוֹרָה**(토라)를 ‘가르침’으로 번역한다면, **אֶלְאַשֵּׁש**(쉬알나)에 들어 있는 동사 **לִשְׁאַשׁ**(샤알, ‘fragen/ask’)도 거기에 맞추어 ‘요청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תּוֹרָה אֲתִיכְפַּחַנִּים תּוֹרָה אֶלְאַשֵּׁש**(쉬알나 옛학코하님 토라)를 ‘너는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요청해 보아라’로 번역합니다.

7.4. 『새한글』 학개 2:11하반의 ‘가르침’

지역 교회의 설교, 교육, 목회, 선교에서는 신구약성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전달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이나 교역자들이 나날의 삶에서 부딪치는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그리스도교 신앙에 비추어 답을 찾아야 할 때는 교역자들을 포함하여 선후배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 말을 구합니다. 이러한 ‘신앙 상담’에서 교역자들, 심지어는 선후배 평신도들에게 받은 ‘가르침’도 일종의 **תּוֹרָה**(토라)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기관이든 모두 **תּוֹרָה**(토라)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성경을 밑바탕으로 삼고 수천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여러 가지 가르침을 참고하면서 시대마다 새롭게 제기되는 신앙 관련 문제를 두고 ‘가르침’을 요청하고 ‘가르침’으로 응답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이토록 신앙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특별히 맡은 사람들이 교역자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예언자 학개조차 일상의 거룩하고도 깨끗한 삶의 문제를 두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

이 옳은가 궁금할 때 당시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요청하여 ‘가르침’을 받았다면, 오늘의 교회나 교단 지도층에 있는 교역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도 언제라도 신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겸손히 선후배 동역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 ‘가르침’을 요청하고 그들이 주는 ‘가르침’을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제어>(Keywords)

창세기 6:6, 시편 84:6, 예레미야 3:22, 예레미야애가 1:1, 학개 2:11.

Genesis 6:6, Psalms 84:6, Jeremiah 3:22, Lamentations 1:1, Haggai 2:11.

(투고 일자: 2025년 3월 3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5월 19일)